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은영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Eun Young Park
Dept. of Dental Hygiene,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의 학년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 치위생과 학생 총 201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23 문항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32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기입식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23.0이며,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과 일원분산매치분석(ANOVA),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학년별 자기효능감은 1학년 3.12점, 2학년 3.21점, 3학년 3.14점으로 2학년이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 3.41점, 2학년 3.21점, 3학년 3.22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년별로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that affect adaptation to college life (a transitional period before entering society) based on academic year and how these differences affect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study targeted 201 first-, second-, and third-year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and was conducted with a self-administered method asking 23 questions about self-efficacy and 32 questions about adaptation to college life, each rat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statistical program used was SPSS v23.0 for frequency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imple regression. As a result, the highest self-efficacy score was 3.21 for second-year students, followed by 3.14 for third-year students and 3.12 for first-year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scored highest in first-year students (3.41 points), 3.22 points for third-year students, and 3.21 points for second-year students. In conclusion, there ar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cross different academic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fferentiated programs to support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Keywords : Dental Hygiene, Self-efficacy, Adaptation to College life, General Self-efficacy, Social Adapta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 Young Park(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email: attics@naver.com

Received April 23, 2024

Accepted June 7, 2024

Revised May 21, 2024

Published June 30, 2024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COVID-19 등의 예측하지 못한 외부환경의 변화들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적응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인환경의 변화가 아닌 'COVID-19'라는 팬데믹적 환경의 변화에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학년마다 대학생활 적응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역할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 대인관계, 학업 수행, 진로선택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대학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적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1]. 이러한 개인적 내적 변인을 자기효능감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하였다[2].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써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감이 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과 연관된 생활, 대인관계 또는 과외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학생에 대해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강한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고,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온다[5]. 대학생활적응의 여부는 학업적인 적응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에 의해 결정된다[6].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사회적·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7]. 대학생들은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해결해야 할 고민들도 많아짐에 따라 일부는 이를 적절히 대처하고 잘 극복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8].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을 밝혀낸 Choi[6]의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Park[1]

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Lee[9]의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큰 변수로 작용함을 나타냈다. 또한 Zhang 외[10]의 연구는 신입생의 학업적 수행과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Kim[11]의 연구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이나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성,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로부터의 독립과정 등 다양한 변인이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전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함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신입생 생활을 경험하고 국가고시, 임상실습, 취업 등을 앞둔 3학년과 1, 2학년의 학년마다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년마다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이해도를 높이며,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되고자 연구를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1, 2, 3학년 학년별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각 변수 간의 영향요인과 학년 간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 2, 3학년은 학년마다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다.

셋째, 학년마다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의 적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치위생 전공 학생들

1,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3월4일부터 3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 연구대상의 학생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문조사 전 학생들에게 알리고 동의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한 응답 또는 무응답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01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3]의 설문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효능감 17개 문항과 사회적 효능감 6개 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 자기기입식으로 표기하였고, 대학생활적응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학업적응 7개 문항, 사회적 적응 6개 문항, 개인-정서적응 11개 문항, 대학환경적응 10개 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를 자기기입식으로 표기하였다[12].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 23개 문항의 Cronbach'α는 0.682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의 32개 문항의 Cronbach'α는 0.685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1, 2, 3학년 학년별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의 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고, 자아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하위요인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8명(4%), 여자가 193명(96%)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5명(37.3%), 2학년이 56명(27.9%), 3학년이

70명(34.8%)이었다. 의사소통의 교육 유무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134명(66.7%), 의사소통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67명(33.3%)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본가에서 거주는 117명(58.2%), 그 외의 거주는 84명(41.8%)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의 계기는 자의가 173명(86.1%), 타의가 28명(13.9%)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ategory		Number of Student	Percentage(%)
Gender	Male	8	4
	Female	193	96
Academic Year	1st Year	75	37.3
	2nd Year	56	27.9
	3rd Year	70	34.8
Reasons for Major Selection	Self	173	86.1
	Others	28	13.9
Residence Type	Home	117	58.2
	Others	84	41.8
Total		201	100

3.2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별 자기효능감은 1학년이 3.12점, 2학년이 3.21점, 3학년이 3.14점으로 2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3.41점, 2학년이 3.21점, 3학년이 3.22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ategory		N	Mean	SD
Self-Efficacy	1st Year	75	3.12	.254
	2nd Year	75	3.21	.468
	3rd Year	56	3.14	.435
college adaptation	1st Year	56	3.41	.344
	2nd Year	70	3.21	.377
	3rd Year	70	3.22	.387

3.3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차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효능감은 2학년

이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효능감도 3.19점으로 2학년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1학년이 사회적 적응 3.7점, 학업적응 3.55, 2학년이 사회적 적응 3.49점, 3학년 사회적 적응이 3.52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적응이 1학년 3.55, 2학년 3.19, 3학년 3.14, 대학환경적응이 1학년 3.48, 2학년 3.21, 3학년 3.2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academic year.

Variables	Category	N	Mean	SD	F	p
General Self-Efficacy	1st Year	75	3.18	0.19	.938	.393
	2nd Year	56	3.24	0.46		
	3rd Year	70	3.15	0.44		
Social Self-Efficacy	1st Year	75	3.06	0.40	.886	.414
	2nd Year	56	3.19	0.60		
	3rd Year	70	3.13	0.62		
Academic Adaptation	1st Year	75	3.55	0.40	25.455	<.001**
	2nd Year	56	3.19	0.34		
	3rd Year	70	3.14	0.34		
Social Adaptation	1st Year	75	3.70	0.66	2.255	.108
	2nd Year	56	3.49	0.57		
	3rd Year	70	3.52	0.64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1st Year	75	2.90	0.24	.83	.438
	2nd Year	56	2.95	0.53		
	3rd Year	70	2.99	0.46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1st Year	75	3.48	0.38	8.632	<.001**
	2nd Year	56	3.21	0.46		
	3rd Year	70	3.22	0.45		

*<.05, **<.01, ***<.001

3.4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Table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량은 .211(F=54.641, p<.001)로 나타났다(Table 4-1).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4가지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4-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학업적응은 .65(F=11.751, p<.001), 사회적응은 .228(F=58.674, p<.001), 개인-정서적 적응은 .11 (F=24.531, p<.001), 대학환경적응은

.132(F= 30.389, p<.00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적응이 .228(F=58.674, p<.001)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2).

Table 4-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research participants on college adaptation.

Category	B	R ²	△ ²	F
Self-Efficacy	.452	.215	.211	54.641**

*<.05, **<.01, ***<.001

Table 4-2. The effect of research participants'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R ²	△ ²	F
Self Efficacy	Academic Adaptation	.251	.056	.051	11.751**
	Social Adaptation	.779	.228	.224	58.674**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58	.11	.105	24.531**
	University Environmental Adaptation	.419	.132	.128	30.389**

*<.05, **<.01, ***<.001

3.5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상관분석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일반적 효능감은 학업적응(r=.285, p<.01), 사회적 효능감은 학업적응(r=.140, p<.05)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적 효능감은 사회적 적응(r=.352, p<.01), 사회적 효능감은 사회적 적응(r=.439, p<.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개인-정서적 적응(r=.425, p<.01),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개인-정서적 적응(r=.179, p<.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대학환경적응(r=.367, p<.01),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학환경적응(r=.266, p<.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ollege adaptation.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General Self-Efficacy	1					
Social Self-Efficacy	.407**	1				
Academic Adaptation	.285**	.140*	1			
Social Adaptation	.352**	.439**	.570**	1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425**	.179*	.232**	.271**	1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367**	.266**	.774**	.742**	.289**	1

* $\lt .05$, ** $\lt .01$, *** $\lt .001$

4. 논의

선행연구들은 학년의 구분 없이 전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였다. 그중 Lee[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273 ~ .481' 범위 안에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lt .001$), 일반적 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p\lt .001$). 이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큰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전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보다 학년마다 자아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학년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에서도 학년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학년별 자기효능감은 1학년이 3.12점, 2학년이 3.21점, 3학년이 3.14점으로 2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Choi[6]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아효능감은 1학년이 3.89점, 2학년은 3.73점, 3학년 3.86점, 4학년은 3.70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학년이 높아진다고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은 1학년이 3.41점, 2학년이 3.21점, 3학년이 3.22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oi[6]의 대학생활적응의 결과에서도 1학년은 5.41점, 2학년은 5.35점, 3학년은 5.45점, 4학년은 5.1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적응도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학년이 되더라도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의 하위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효능감은 1학년 3.18점, 2학년은 3.24점, 3학년은 3.15점이고, 사회적 효능감은 1학년 3.06점, 2학년 3.19점, 3학년 3.13점으로 2학년이 가장 높았다. Lee[3]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적 효능감은 1학년 56.32점, 2학년은 57.12점, 3학년은 59.35점, 4학년은 58.06점이었다. 사회적 효능감은 1학년은 20.36점, 2학년은 19.59점, 3학년은 20.61점, 4학년은 21.63점을 보였다. 학년별 학업적 적응 결과에서는 1학년은 3.55점, 2학년은 3.19점, 3학년은 3.14점으로 1학년이 높게 나왔다. Lee[3]의 연구결과에서도 학업적 적응은 1학년이 75점, 2학년이 74점, 3학년이 51점, 4학년이 16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학년별 대학환경 적응은 1학년은 3.47점, 2학년은 3.21점, 3학년은 3.22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다. Lee[3]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환경적응은 1학년이 76점, 2학년이 75점, 3학년이 51점, 4학년이 16점으로 1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대학환경의 적응은 1학년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높은 점수가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서는 사회적 적응이 .228 ($F=58.674$, $p\lt .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oi[6]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적응이 .200 ($F=84.512$, $p\lt .00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Lee[3]의 연구에서도 .61($F=17.407$)로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 전공학생들은 학년별로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1학년은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높은 결과를 보였고, 3학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전공 학생들의 학년마다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자기에착 등 다양한 변인들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치위생 전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4년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부산지역 3년제 대학의 치위생 전공 학생들 201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전공선택 계기, 거주형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고, 치위생 전공학생 1, 2, 3학년 모두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학년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중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3학년, 1학년 순이었다.
3.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학년마다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대학생활적응 4가지 하위요인의 분류에 따른 결과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중 1학년은 학업적응, 사회적 적응이 가장 높았고, 2학년은 사회적 적응 3학년은 사회적 적응이 가장 높았다.

1, 2, 3학년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임을 결과로 보여주었다. 치위생 전공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1학년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컸고, 2학년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학년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임상실습, 국가고시, 취업 등의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학년은 COVID-19의 상황에서 비대면수업등으로 신입생 생활을 보내면서 대학생활의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학년이 높다고 해서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년마다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이 높다고 하였으나, 학년마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에는 학년마다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학년별 차별화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개발과 학생상담의 기초자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S. Y. Park,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counseling education, pp.49, 2003.
- [2]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2, pp.191-215, 1977
<https://psycnet.apa.org/record/1977-25733-001>
- [3] J. S. Lee,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daptation to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of counseling education, pp.14, 2009
- [4] R.W. Baker, B. Siryk, "Measi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31, 2, pp.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5] P. R. Printrich, E.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1, pp.33-40,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2.1.33>
- [6] E.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sychology, Seoul, Korea, pp.33, 38-40, 2001
- [7] J. Y.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Daegu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pp.3, 2014
- [8] H. Y. Lee, *A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p.24, 2017
- [9] Y.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ersonality,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educational counseling. pp.21-25, 2002

- [10] Z. Zhang, R. S. RiCharde, Freshman academic achievement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earch report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 pp.24
DOI: <https://doi.org/eric.ed.gov/?id=ED435621>
- [11] H.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of counseling education, pp1-45, 2004
- [12] G. S. Yi,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on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pp.30-33, 2019

박 은 영(Eun Young Park)

[정회원]



- 2007년 8월 : 서울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석사)
- 2014년 8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4년 3월 ~ 2020년 2월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2022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행정학